

부
활

Resurrection

김영섭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Sub

올해는 유난히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춘삼월(春三月)이면 어김없이 피는 우리집 한옥 마당의 백매(白梅)도 4월이 되어서야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동안 무척이나 봄소식을 고대하였던지 지난 3월의 눈보라가 흠날리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잠시나마 매화나무 높은 가지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매화우(梅花雨)로 착각하였다.

춘래불이춘(春來不而春)이라고 잔인한 날씨 탓을 하였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와 새로운 부활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어두운 갈색의 산하에 봄기운이 찾아들어 연한 연두색으로 변하는 이른 봄의 사랑스러운 정경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 도로변의 죽은 나무 가지에 노오란 물이 오르고 이윽고 그것이 개나리 꽃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외침 부활로 이어지는 극적인 장면은 매년 보아도 새롭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다. 춘래무처불개화(春來無處不開花) - 봄은 왔으나 아무곳에도 꽃들이 피어 있지 않은 꿈속에서 이 땅의 건축인들은 아직도 추운 세파속에서 부활의 봄을 무작정 기다리며 떨고 있었다. 그가 운데에 어떤 이가 “자연이 가르쳐주는 부활이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반대편 쪽에서 그렇다면 건축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이야기해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우선 주위를 한 번 둘러보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예언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건축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온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도 지난 세기의 이 땅의 도시와 건축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는 말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거대도시가 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닌 역사도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조상들이 물려 준 도시의 역사환경을 이토록 단 시간 내에 철저히 파괴하여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흔재라는 이름으로 대체시킨 예 또한 흔치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지고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소도시와 농촌 어디나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일 년에 수만 건에서 수십만 건의 미완의 건축을 펼쳐 놓은 것은 그대를 비롯한 이 땅의 건축사들의 손이 빚어낸 결과인 것이다. 어디 우리에게만 책임이 있느냐고 항변하기 전에 이렇게 되기까지,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망하게 되기까지 건축인들 스스로 전문인으로서 직능과 직분에 충실하였는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특히 시간 많은 요즘은 반성하기에 너무도 좋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도 그는 말하였다. 좋은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이 삶을 이어갈 터를 만들려면 좋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관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축인들은 지난 수십년 간 시도 때도 없이 공허한 목소리로 외쳐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건축인들은 자신들의 눈 속의 들보를 걸어내지 못하는 주제에 주위 여건과 남의 탓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고 물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겸허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아무나 건축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건축사 자격시험에만 합격하고 나면 아무 건물이나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럴리아 없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막된 말로 하기 싫은, 해서도 절대 안되는 건축주의 요구와 집장사들의 농단에 그대들의 손을 빌려 주었던 것은 아닌가? 공동체적 삶의 가치는 말뿐이고 길거리에 면한 공동성조차 철저히 외면한 채 지적도라는 땅금 안에서 최소 투자와 최대효과라는 경제성 우위의 논리로만 건축을 다루어서 급기야 이 땅의 건축은 곧 부동산이라는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닌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데 일조를 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권유하고 주도하기조차 한 것은 아닌가하고 그는 건축인들에게 물었다.

그 많은 설계경기를 통하여 세계적 건축문화 유산을 만들기는 커녕 후손들에게나마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있는 부끄럽지않은 건축 유산을 만드려는 정당한 노력보다 심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다가 급기야는 앞으로 있을 설계 경기의 심사위원이 될 만한 대상 교수 모두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주선해서 편법으로 대부분의 관공서 설계경기를 독식해 보려는 파렴치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비도 실력이다 라고 우기면서 자신마저 설득하거나 고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계획설계와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에 따른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해외에 발주하였지만 건축허가서에 자기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각종 건축상을 얹치없이 수상하는 것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때로는 권장사항이 되어 주위 동료들에게까지 차례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미덕이 어느덧 보편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을 주는 쪽에서조차 그런 일은 신경 꺼버린 외국 같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의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는 물었다.

동강 댐이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목학회 일이고 그린벨트가 대책없이 해제되어도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니 시민 단체나 국회 같은 곳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러브호텔로 온 사회가 떠들어도 그것은 지방자치제와 해당 학교 정화위원회가 해결 할 문제이며, 다세대 다가구 건축으로 도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택건설 200만호라는 6공화국의 위대한 주거 정책이 살아 있는 한 끝까지 명운을 함께 하겠다고 건축인들이 마음을 드잡았기 때문인지 물었다.

계속해서 예언자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의 도시와 건축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 그대들의 손으로 빚어진 이 도시와 건축을 그대들의 아이들이, 아들과 딸의 자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시건축 유산으로 물려주기에 마땅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건축인들이 모두 죽어 도시와 건축이 새롭게 되살아난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예언자는 "감히 그대들에게 말한다"고 사람들 속에서 외쳤다. 건축설계를 먹고 사는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건축계를 떠나라. 건축은 건축사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도 떠나라. 입으로만 건축문화를 외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정체불명의 베풀내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을 그만 두어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건축의 선무당들이기 때문이다. 건축에 기생해서 살아온 로비스트들은 그냥 하루종일 골프장에

서만 살아라. 차라리 프로골퍼가 되는 것이 자식들 보기에 더 떳떳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 건축설계를 한 번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교수들은 설계경기심사 제의가 들어오면 정중히 사절하라. 그래도 발주처에서 제의를 계속 부탁해오면 심장수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의사가 심장수술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점잖게 충고해 주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 건축인들이 죽고 도시와 건축이 부활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일만명 남짓되는 건축사들이 그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나라 이 강산을 요절내어 정체불명의 어지럽고 혼돈된 도시와 건축을 양산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새로 부활하는 건축대학은 건축을 하고 싶고 건축할 자질이 충분히 있는 새싹들만 뽑아라. 설계도 하다가 사세 부득이하면 시공회사도 갈 수 있다는 눈치 보는 쪽정이는 뽑아내어라. 건축설계 비전공 교수들도 1,2학년 정도 설계는 내가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좋은 실무경험을 가진 건축가만이 건축설계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에 임하여라.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면허대여라도 해 보려고 불필요하게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라. 건축사 자격이 생활을 보장해 주던 좋은 시절은 끝이 났다. 일단 벌려논 판이니 어찌 되던지간에 끝까지 가보자고 모두가 무한경쟁을 벌인다면 공멸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목소리를 높혀 갔다.

큰 일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의 뛰어난 건축사들도 1년에 주택 작품 서너개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자연과 도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작은 건축 일에 혼신을 다하여 정진하는 모습과 도시 사회문제와 환경파괴에 분명하게 전문 집단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큰바위 얼굴과 같은 태도야말로 부활한 건축인들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덤핑하거나 남의 아내 탐내듯 동료의 일을 탐내지 말라. 건축계를 물 없는 사막으로 내모는 짓이 되리라. 예언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렇듯 예언자의 말은 하나 같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활 없는 영원한 침묵 속에서 죽음과 같은 몰락의 길이 그대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면서 말을 거두었다. 예언자는 죽은 나무에 성수를 뿌리는 시늉을 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 창 밖을 바라보니 가느다란 세우(細雨)가 매화나무 검은 가지들을 적시고 있어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 맹 추위에 혹 나무들이 뿌리까지 얼어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비를 맞으며 마당에 나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보았다. 검은 피부 속에 얼핏 초록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나무는 아직 살아있었으며 찬란한 부활의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